



한우(韓牛)가 공사장 소음에 노출시 유·사산 및 성장지연 초래 인정

- 공사장 인접 공사장 발생소음으로 인한 한우피해에 대하여 1,480만원의 배상결정
- 축사주변 가설 방음벽 설치 등 적극적인 피해방지 필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상수도담 공사를 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한우 축사에서 측정된 소음도가 68~78데시벨로 나타나 유·사산, 번식효율 저해 및 성장지연을 일으킨 이 사건의 시공사 및 시행사에 대하여 1천 480만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사장 면적이 넓은 데 비하여 인접한 축사의 면적이 작은 것을 감안할 때 시공사가 축사 주변에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소음방지대책을 추진하였다면 사전에 한우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축의 경우에 사람보다 소음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2001.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신청인이 주장한 한우 피해에 대하여 시공사 및 시행사가 연대하여 피해 배상을 하도록 하였다.

위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의 임계수준은 통상적으로 70데시벨 범위로 보되, 사육환경 및 개체의 허약상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50~60데시벨 범위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공사시 소음도에 따라 유·사산등 피해에 대해서는 발파작업시 순간 최고소음도 78데시벨에 따른 5~10%의 피해를 인정했고, 번식효율 저하 및 성장지연 피해에 대해서도 공사장비 가동시 등의 등가소음도 68데시벨에 따른 5~10%의 피해를 인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비록 신청인이 한우 피해를 입증하는 수의사 진단서 등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공사시 피신청인이 측정한 소음도 측정자료, 이격거리, 사용장비 등을 통하여 공사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한우 피해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고 있고, 전문가의 현지조사결과도 한우피해를 인정하고 있어 신청인에게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하게 되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경남 남해군 00면 00리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관리하는 축사에 인접한 00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사육중인 한우가 유·사산, 성장지연 및 번식효율 저하피해를 입고 있다며, 인접한 상수도담 공사 시행사인 00군수와 시공사인 00건설을 상대로 한우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오염분쟁사건에 대하여, 공사시 순간 최고소음도가 78데시벨, 등가소음도 68데시벨로 한우가 유·사산 및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시행 및 시공사가 연대하여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환경부 보도자료 / 2006년 4월 25일

부루셀라증 인체감염 전국 실태조사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부루셀라증 환자가 해마다 늘자 전염병 당국이 예방관리 차원에서 전국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0개 시·군·구의 축산업 종사자와 수의사 등 고위험군 5천여명을 대상으로 부루셀라증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월 24일 밝혔다.

부루셀라증은 2000년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걸리는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된 후 2002년 10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확인됐다. 이후 부루셀라증 감염자는 2003년 16명, 2004년 47명, 2005년 158명 등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4월 현재 37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는 감염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와 혈청 항체 검사방식으로 이뤄진다.

질병관리본부는 10월까지 실태조사를 끝내고 조사결과를 농림부에 통보해 농림부와 공동으로 부루셀라증 공동예방 관리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루셀라증은 부루셀라에 감염된 동물(소)의 혈액이나 대소변, 태반 등에 있던 병원균이 상처난 피부나 절막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된다. 또 멸균처리되지 않은 유제품을 섭취해도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되면 2~4주의 잠복기를 거쳐 두통, 발한, 전신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몇년 동안 재발한다. 감염자 중 2% 이하는 심내막에 염증이 생겨 사망할 수도 있다.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우며 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살균되지 않은 우유 등 유제품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루셀라증 감염자는 주로 축산업 종사자들이다. 158명의 환자가 발생한 2005년의 경우 축산업자가 142명이었고, 수의사 15명, 기타 1명 등이었다.

부루셀라증 환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부루셀라에 감염된 소들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병원체에 감염된 소는 2003년 552마리에서 2004년 4천76마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 2006년 4월 24일

로드킬, 족제비·너구리 가장 많다

소형 포유동물인 족제비와 너구리가 차량에 부딪혀 죽는 일명 로드킬을 가장 많이 당하고, 전남 영암~보성을 잇는 2번 국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년동안 광주·전남지역 국도와 지방도 등에서 야생동물 26개종 372마리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4월 19일 밝혔다.

이 중에는 포유류가 10종 280마리 7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조류 6종 20마리, 양서류 3종 17마리, 파충류는 7종 55마리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죽은 동물은 비교적 활동성이 높은 족제비로 전체 발생 건수의 38.4% (143마리)를 차지했으며 너구리 22.8%, 유헤목이(꽃뱀) 6.2%, 청솔모와 다람쥐 각각 5.3% 등의 순이었다.

로드킬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가을철로 포유류는 어미로부터 독립하는 10월, 조류와 파충류는 9월, 양서류는 7월에 사고를 주로 당했다. 반면 전반적으로 야생동물의 이동이 줄어드는 1월의 사고빈도는 가장 낮았다.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도로는 최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된 영암~보성간 2번 국도로 야생동물들이 먹이섭취와 번식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형변화를 모른 채 도로를 횡단하다가 로드킬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암 월출산국립공원 인근 도로변의 경우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가 최근 2년간 로드킬을 모니터링한 결과 생태계의 단절을 초래한 도로건설에 따라 지난해 확인된 것만 17마리의 동물이 숨지는 등 서식환경이 파괴된 야생동물의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동안 로드킬은 영암~강진간 13번 국도 중 풀치너널 부근과 영암~목포간 891번 지방도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사슴 노루 등 대형 포유류를 위한 폭 2m 안팎의 생태교량을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고 있다”며 “도로를 건설할 때 충분한 기초조사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쿠키뉴스 / 2006년 4월 19일

영주 야생조수류 보관소, 어린이 교육장으로 '인기'

야생조수류 임시보관소가 자연생태계 산 교육장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4월 14일 영주 아지동 한국조류보호협회 영주지회 야생동물 임시보호소를 찾은 유치원생들은 새와 노루, 독수리 등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을 바라보며 신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최형철(6) 군은 “독수리가 너무크고 무서워요. 작은 동물을 잡아 먹는 게 신기해요. 텔레비전에 나온 노루는 펄쩍펄쩍 뛰어 다니고요.”라며 신기해 했다.

이곳에는 천년기념물 7종(독수리·수리부엉이·올빼미·황조롱이·매·참매·큰소쩍새) 17마리, 야생조수류 6종(기러기·청둥오리·너구리·고라니·노루·말뚝가리) 12마리, 박제품 40여종(수달·살 등), 구조활동 사진 20여 점이 보관해 있다. 특히 교육장에 전시된 40여종의 희귀 조수류 박제품과 밀렵꾼들이 설치한 올가미, 구조사진은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에 공개돼 자연생태계의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15개교,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이곳을 찾아 체험을 했다.

조류보호협 영주지회는 1998년 영주 농업기술센터내에 보호소를 설치, 운영하다 2004년 조류협회 지원으로 현 위치로 이전, 야생조수류 구조활동과 불법밀렵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매일신문 / 2006년 4월 18일

[IT Korea-KIECO 둘째날] '디지털 홈'·사무실서 애완견 식사 원격 조절

외출 시 누군가 집에 오면 사진을 찍어 문자메시지와 함께 보내주는 지능형 시스템, 밖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거실에 있는 디지털액자에 전송하는 서비스, 직장에서 일하다가 휴대폰을 이용해 애완견에

계 밥을 주거나 음악을 들려주는 ‘팻케어’ ….

머지않아 흔히 접하게 될 ‘디지털홈’의 단편적인 모습이다.

4월 12일부터 서울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열리고 있는 국내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IT Korea-KIECO 2006’에서도 ‘유비쿼터스 시대’에 실현될 스마트홈 관련 상품과 서비스가 대거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SK텔레콤은 휴대폰을 이용해 가정 내 디지털 기기를 제어하는 ‘디지털홈관’을 마련했다.

이 중에는 휴대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벽걸이형 디스플레이로 보내 디지털 액자로 활용하는 ‘러뷰’ 서비스(www.lovieview.co.kr)가 인기를 모았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디지털 이미지를 슬라이드 형태로 띄워놓을 수도 있고 날씨 증권 등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외 출장 길에 혼자 보기 아까운 장면을 찍어 애인의 디지털 액자로 바로 전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공개한 서비스 중 외부에서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관리하는 ‘팻워치’ 시스템도 흥미를 자아냈다. 이 기기를 집안에 설치하면 식사량까지 조절해 원격으로 밥을 주고, 내장 카메라를 활용해 동물이 노는 모습을 관찰할 수도 있다.

구로디지털밸리관에 출품한 유신테크는 ‘유비셀’이라는 홈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을 선보였다.

휴대폰 등으로 전등, 가스 밸브, 보일러 등을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부재 중에 누군가 집에 찾아오면 즉시 확인할 수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지정해둔 전화로 자동으로 통보 받을 수 있다. 오토링스는 아파트 단지는 물론 백화점, 병원 등에서 활용하기 좋은 통합 주차정보관리 시스템을 시연해 보였다.

가정이나 병원 등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차량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습과 주차 위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마이비엠 매트론 카오스윈 홈시큐넷 등 26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경남스마트홈진흥회는 독립관을 꾸려 각종 홈네트워크 기술과 부품을 선보였다.

매트론은 전력선통신용 모뎀을, 마이비엠은 홈네트워크 컨트롤러를, 오스윈은 원격검침시스템을 각각 내놓았다.   

한국경제 / 2006년 4월 13일

